

양동시장 달군 '천원 맥주'...3일간 8만명 '복적'

제4회 양동통맥축제 '다시해봄'

서구 주최...중기부 동행축제 연계 개최
23-25일 시장 내 구6번로 일대서 열려
먹거리 부스·버스킹 공연 등 행사 다채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 구6번로 일대에서 '제4회 양동통맥축제 다시해봄(春)'이 열렸다. 사진은 축제 마지막 날인 25일 시민들로 북비는 행사장 모습. /이연상기자

"평소에도 장을 보러 자주 오는 양동시장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처음이네요. 시장 전체가 축제장 같아요."

제4회 양동통맥축제의 마지막 날인 25일 오후 7시에 오른손에는 통닭을, 왼손에는 맥주를 든 한 시민은 이같이 말했다.

광주 서구가 주최하고 양동전통시장 활성화협의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제4회 양동통맥축제는 '다시해봄(春)'을 주제로 '2026년 상반기 동행축제'와 연계해 지난 23일부터 사흘 열렸다.

서구는 이 기간 8만명이 양동시장을 찾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행사가 열리는 시장 구6번로에 들어서

기 전 양동시장 대표 먹거리인 '수일통닭'과 '양동통닭' 앞에는 긴 줄이 늘어져 있었다. 통닭을 포장해 나오던 한 시민은 "40분 동안 기다려서 겨우 받았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다"며 "이제 맥주를 사러 가야 한다"고 말하며 웃었다. 구6번로 골목은 고소한 기름 냄새로 가득차고, 각종 먹거리를 판매하는 부스에서는 상인들이 빠른 손놀림으로 갖 부친 전과 뜨거운 김을

풍기는 수육, 노릇하게 튀겨낸 분식 등을 판매했다. 이 중 단연 인기가 높았던 건 '천원 맥주'였다. 시원한 생맥주 한 잔(약 450ml)을 단 돈 1천원에 팔면서 해당 부스 앞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축제 기간 준비했던 300통은 이날 오전 모두 소진될 정도였다. 이에 70명이 추가됐지만, 오후 8시30분께 동이났다.

판매 부스 반대편에는 구대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돼 있었다. 테이블은 지난 해보다 100개가 늘어 350개가 설치됐지만, 인파가 몰리면서 자리를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때문에 몇몇 방문객들은 문을 닫은 가게가 판매 앞이나 시장 바깥 한 편에 돛자리를 펴서 음식을 먹어야 했는데, "이것 또한 낭만(?)"이라며 축제를 즐겼다.

먹거리 판매 부스 외에도 시장 곳곳에선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려 방문객들을 사로잡았다. 양동복개상가 앞 '스트리트 캔버스'에서는 아이들이 색연필과 물감 등 채색 도구를 이용해 축제와 관련된 그림과 문구를 자유롭게 그렸고, 건너를 사거리에서는 '통맥 버스킹 길거리 노래방'이 열려 지나가던 시민들이 노래를 신청하고 부르는 무대가 이어졌다.

김용목 양동전통시장 활성화협의회 위원장은 폐막식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질서정연하게 참석해 주셔서 벌써 회까지 진행될 수 있었다"며 "광주를 대표하는 먹거리 축제로 거듭나도록 40회, 400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매일 TV kjdaily.com (영상뉴스)

도교육청-교사노조 정책협의회서 근무여건 개선 등 47개 의제 합의

전남도교육청과 전남교사노동조합이 건강하고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청내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정책협의회 체결식'을 개최했다.

노·사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사 근무여건 개선·본직업무 회복 ▲교육활동 보호 ▲학교 행정업무 경감 ▲학생생활지도 개선 등 47개 의제에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정책협의 합의 사항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현장 만족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이번 협의회가 단순히 문구의 합의를 넘어 교사들이 오롯이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신안 위원장은 "합의된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돼 교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모니터링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선욱기자

"조선대 차기 이사장 내정...절차적 정당성 붕괴"

법인 이사, 입장문 통해 공개 비판

"정이사 개편 제도 개선 필요" 주장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현직 이사가 차기 이사장 내정 논란과 폐쇄적인 이사 추천 방식 등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

조성철 조선대 이사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 "조선대는 학원 민주화 투쟁 역사 속에서 수많은 피와 희생을 지켜낸 대학"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사회 개편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 이사는 "차기 이사장이 사실상 내정됐다"며 "이사장은 이사회 내부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호선으로 선출돼야 한다.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를 진행하면 이사회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개방이사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이사는 "개방이사는 정이사를 견제하기 위한 자리다. 자리를 거쳐 곧바로 정이사가 되는 구조라면 견제 기능은 작동할 수 없다"며 "현 개방이사를 차기 정이사로 예정하는 방식 역시 개방이사 제도 취지를 정면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록빛 봄 추억 남겨요 초여름 날씨를 보인 26일 오후 담양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조록빛으로 물든 메타세쿼이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있다. /조영권기자

이어 조 이사는 "학령 인구 급감 상황에서 2028년을 기점으로 지방대는 본격 위기 국면에 들 어설 것이다. 조선대처럼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은 그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위기를 돌파하려면 이사회가 어느 때보다 전략적이고 유능하게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이사 추천 방식은 안이

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이사 결원 시 이사회 추천 의견 절차는 유지하되, 대학 구성원 대표기구인 대자협이 동수로 정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또 이사회 정수도 분야별 역량을 갖춘 인사들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선욱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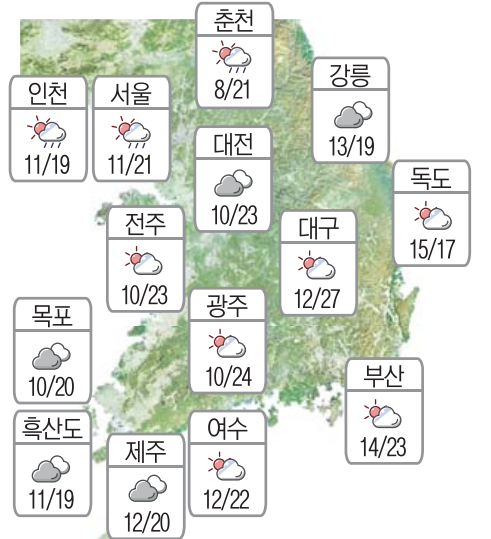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6 해질 19:15 🌙달출 15:04 달짐 03:19

●광주·전남 날씨

광주	구름조금	10/24	장성	구름조금	8/23
목포	구름많음	10/20	보성	구름조금	9/23
여수	구름조금	12/22	함평	구름조금	8/22
나주	구름조금	9/23	순천	구름조금	8/25
완도	구름조금	10/23	영광	구름조금	8/21
구례	구름조금	10/25	진도	구름많음	8/19
강진	구름조금	8/23	흑산도	구름많음	11/19
해남	구름조금	7/22	고흥	구름조금	9/23
광양	구름조금	10/24	담양	구름조금	8/24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0.5	0.5-0.5
남부 앞바다(북)	0.5-1.0	0.5-1.5
남부 앞바다(남)	0.5-1.0	0.5-1.5
남해 앞바다	0.5-0.5	0.5-0.5
서부 앞바다(동)	0.5-1.0	0.5-1.0
서부 앞바다(서)	0.5-1.0	0.5-1.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11:17	04:02	06:21	12:38	07:07	00:52
여수	23:45	16:47	18:54	---	19:34	13:45

●생활정보지수

니들이 80 **세차 70**

감기 조심해요 세차하기 좋은날

빨래 70 **운동 60**

실외건조 좋아요 준비운동은 충분히

●주간 날씨

28일(화)	29일(수)	30일(목)
☁(13/20)	☁(9/19)	☀(7/23)
구름많음	구름많음	맑음
5월1일(금)	2일(토)	3일(일)
☀(8/23)	☀(9/24)	☀(9/24)
맑음	구름조금	구름조금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태블릿,TV,PC 모두를 위한 **Type A,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하늘아래 단 하나의 터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 추모원

법당형 봉안당 시스템 해원정사 VIP추모원은

- 1 편리한 접근성
광주광역시 중심 동구에 위치하며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2 명품안치단
극락전 VIP안치단은 고인이 유품을 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더 넓고 화려한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 3 극락전VIP추모관
내부에서 골고루 자연재광이 되도록 설계 하였고, 환온-환습시스템으로 고인을 쾌적하게 모십니다.
- 4 해원정사 추모원을 중심으로 문화행사
- 명상과 힐링 프로그램
- 매년 가을에 추모산사유학회 개최
- 해원정사 추모원에 모시는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스님께서 매일 기도를 해드립니다.
- 매월 음력18일 지장재와 백중, 구경, 추석 등 매년 15회 합동제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 추모관은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보안은 5중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더욱 안전합니다.

프리미엄 봉안당 지금 준비가 가장 현명 10년후면 더 비싸집니다. 봉안당은 부동산의 성격을 가집니다. 미리 구매하여 비용을 절감하세요!

VIP 가격표 (관리비별도)

개인 단	400백만원 ~
부부 단	800백만원 ~ 2,400백만원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 추모원 광주광역시 동구 분산길 100 대표전화 | 062-234-4576
www.haewonjungsas.com